

# 력매전반, 뛰다에서의 기록



강규림 강아란 김단오 김동연 김지후 박석현  
 백늘푸른 서지호 여민지 이기범  
 이룡수 이지섭 이채영  
 임소은 최규민  
 은정T 성훈T 양선T

# 목차

- 일정표
- 식단표
- 하루 일기
- 무빙을 마치는 소감
- 움직이는 학교(뛰다) 학생 평가서
- 공연 대본



## 하루 일정

시간	일정	비고
7:00	기상	
7:30~9:00	아침식사 및 수업준비	
9:00~12:00	수업	
12:00~2:00	점심식사	
2:00~6:00	수업	
6:30~7:30	저녁식사	
사이에	청소	
9:00	하루나누기	간식, 통신원 이때부터 핸드폰 가능
11:00	취침	

# 첫째 주

1주차

시간	7일 (일)	8 일(월)	9일(화)	10일(수)	11일(목)	12일(금)	13일(토)
9:00 - 9:30	예술터밭에 모이기	요가-태양을 향한 경배 Suri Namaskaram ; 몸 깨우기(술)					
9:30 - 10:30		타인과 소통, 표현, 공간을 활용한 연극놀이 ; (미농)					
10:30 - 12:00		이미지 글쓰기 1 (주야)	이미지 글쓰기 2 (주야)	이미지 글쓰기 3 (주야)	이미지 글쓰기 4 (주야)	움직임 4 (시총)	소리만들 기 2 (류솔)
12:00 - 2:00		점심식사					
2:00 - 4:15		이것이 연기인가 1 (미농)	움직임 1(시총)	움직임 2 (시총)	움직임 3 (시총)	이것이 연기인가 4 (미농)	휴식
4:15 - 4:30		휴식					
4:30 - 6:00	집 정리/ 휴식/ 저녁식사	몸으로 그림그리 기 1 (주야)	이것이 연기인가 2 (미농)	몸으로 그림그리 기 2 (주야)	이것이 연기인가 3 (미농)	소리만들기 1 (류솔)	공연관람 "구름공장"
6:30 - 7:30	오리엔테이 션 (배요섭)	내소개/환영인사/공간소개/ 지금 텃밭 상황소개 프로그램소개/일정소개/ 선생님 소개/ 생활규칙 아이들소개/ 바라는 마음/					

# 둘째 주

2주차

시간	14일 (일)	15 일(월)	16일(화)	17일(수)	18일(목)	19일(금)	20일(토)	21일(일)
9:00 - 9:30		요가-태양을 향한 경배 Suri Namaskaram (솔)						
9:30 - 12:00		대본읽기/ 전체 장면 구성/ 캐스팅 (요섭)	모듬별 장면발전 시킴기 (미봉, 요섭)	모듬별 장면발전 시킴기 (미봉, 요섭)	모듬별 장면다듬 기 (미봉, 요섭)	각 장면 세부 다듬기 (요섭)	드레스 앤 텍크 리허설	공간정 리 여행을 떠나요
12:00 - 2:00		점심식사						
2:00 - 3:00	휴식	모듬별 장면만들 기 1 (미봉, 요섭)	모듬별 장면만들 기 3	모듬별 장면만들 기 4	움직임/ 양상블 장면 연습 (시총)	양상블 장면 연습 (시총)	공연준비	
3:00 - 4:00							공연발표	
4:00 - 5:00		모듬별 장면만들 기 2 (미봉, 요섭)	장면 공유/ 피드백	움직임 장면 연습 (시총)	거칠게 런쓰루 (요섭)	런쓰루/ 장면 수정 보완 (요섭)	공연 뒷 이야기/ 공연 무대 철거 정리	
5:00 - 6:00								
6:00 - 7:30		저녁식사						
7:30 - 9:00		무대 만들기 (주야)				보충연습	뒷풀이	
참고사항					무대 조명 셋업 (주야)			

## 2학년 움직이는 학교 식단표

구분	행복을 여는 아침	정성이 가득한 점심		건강을 생각하는 저녁	간식
06월 07일 일				계란말이	방울토마토 (규림양)
06월 08일 월	(블랙) 미역국	토마토달걀볶음		해물누룽지탕	시리얼+우유
06월 09일 화	애호박전	비빔국수	아이스크림(셀렉션)	불고기 (소은맘)	방울토마토 (규림양)
06월 10일 수	계란국	태국식 시금치 고기덮밥		목살스테이크카레	한입치즈토스트
06월 11일 목	소고기무국	냉국수 (장아찌소스)		>부모님< 지호맘, 석현맘, 룡수맘 생선구이	수박 (규림양)
06월 12일 금	된장찌개	소세지야채볶음		후라이드치킨 (+양념소스)	사과즙(석현, 지호, 룡수맘) 머핀(재영맘)
06월 13일 토	미역국	백순대볶음		짜장밥	케이크
06월 14일 일		>부모님< 규민빠, 동연빠, 룡수빠 쟁반짜장	쭈쭈바 (규민/동연/룡수빠)	>부모님< 규민빠, 동연빠, 룡수빠 청국장/무생채비빔밥	간식없는날
06월 15일 월	치즈계란토스트 스프 멕시코샐러드	중국식 볶음밥	사과즙(석현, 지호, 룡수맘) 머핀(재영맘)	김치찌개	케이크 (룡수맘)
06월 16일 화	부모님반찬	애호박볶음	쭈쭈바 (규민/동연/룡수빠)	비빔밥 (+계란후라이)	사과즙(석현, 지호, 룡수맘) 도너츠 (선호, 회정, 민혜쌤)
06월 17일 수	커리양파볶음 감자샐러드	중화제육면	콘아이스크림(희석쌤) 수박(푸른빠, 기범빠)	>부모님< 늘푸른빠, 기범빠, 새우볶음밥/미역오이냉국	탄산음료(푸른빠, 기범빠) 방울토마토(지호맘)
06월 18일 목	두부애호박전골	무조림덮밥		닭백숙	사과즙(석현, 지호, 룡수맘)
06월 19일 금	콩나물국	부모님반찬	사과즙(석현, 지호, 룡수맘)	김치찜	수박
06월 20일 토	어묵국	닭죽	사과즙(석현, 지호, 룡수맘)	>부모님< 모두	계절과일
06월 21일 일	부모님 반찬				

# 오늘의 일기에유

임소은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맑음

\*오늘의 기분은유?

기분은 좋지만 더워서 그냥 그래졌다.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이야기 글쓰기가 제일 ㄱ에 남는다.

이유는 뭔가 재미있고 암튼 ㄱ에 남는다.

\*칭찬해유

나 쌤들 규림

\*반성해유

반성할 게 없다.



# 오늘의 일기에유

이기범

2020년 6월 9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안 썸

\*오늘의 기분은유?

좋다.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움직임

\*칭찬해유

X

\*반성해유

X



# 오늘의 일기에유

백날푸른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습

\*오늘의 기분은유?

역시 힘들었다가 또 힘들다가 재밌었음.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목살 스테이크 맛있었음

\*칭찬해유

우리 모두

\*반성해유

여러모로



# 오늘의 일기에유

이지섭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더움

\*오늘의 기분은유?

즐겁다.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연극 시간

\*칭찬해유

X

\*반성해유

욕을 너무 많이 썼음



# 오늘의 일기에유

이채영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더움

\*오늘의 기분은유?

그냥 그래움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대본 읽은거, 손바닥에 물감 묻혀서 그림 그리는거

\*칭찬해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낸 모두

\*반성해유

X



# 오늘의 일기에유

강규림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날씨: 뽕송

\*오늘의 기분은유?

기분 좋음!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연극 본거

\*칭찬해유

임소은

짜장밥

미술수업 안한거

\*반성해유

X



# 오늘은 일요일

부모님들께서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친구들과 장을 봐서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 오늘의 일기에유

서지호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맑고 바람이  
붐

\*오늘의 기분은유?

딱히 뭐라 할 기분은 아닌데 시간이 꽤 빨리 갔다.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평화를 사랑하는 밀덕 연기

\*칭찬해유

대본 같이 읽은 단오규민

\*반성해유

ㄴㄴ



# 오늘의 일기에유

이룡수

2020년6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더움

\*오늘의 기분은유?

좋음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 연기수업

\*칭찬해유

엑스

\*반성해유

엑스



# 오늘의 일기에유

김단오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더움

\*오늘의 기분은유?

굳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움직임

\*칭찬해유

X

\*반성해유

X



# 오늘의 일기에유

박석현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 덩

\*오늘의 기분은유?

굳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대본

\*칭찬해유

친구들 여민지 강규림 빼고 쌤들

\*반성해유

X



# 오늘의 일기에유

강아란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해&바람 아침  
엔 추움

\*오늘의 기분은유?

내일이 기대되지만  
너무 슬프다.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점심먹고 4시까지 쉰거  
저녁에 공연처럼 연습해본거  
시총쌤 떠나신거

\*칭찬해유

모든 쌤들

\*반성해유

있을 것 같지만 모르겠다.....



# 오늘의 일기에유

김동연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날씨:맑음

\*오늘의 기분은유?

기모뒤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발표

\*칭찬해유

모두

\*반성해유

X



# 오늘의 일기에유

여민지

2020년 6월 21일 일요일 오늘의 날씨:덥다

\*오늘의 기분은유?

모꼬지에 왔다. 근데 1일인줄 알고  
옷을 이거 말고 1벌 가져왔다(?)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말할수없다.

공포영화

\*칭찬해유

나

\*반성해유

없다.



# 오늘의 일기에유

김지후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오우

\*오늘의 기분은유?

양 덕규띠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뭐에유?

양 덕규띠

\*칭찬해유

양 덕규띠

\*반성해유

양 덕규띠



## 이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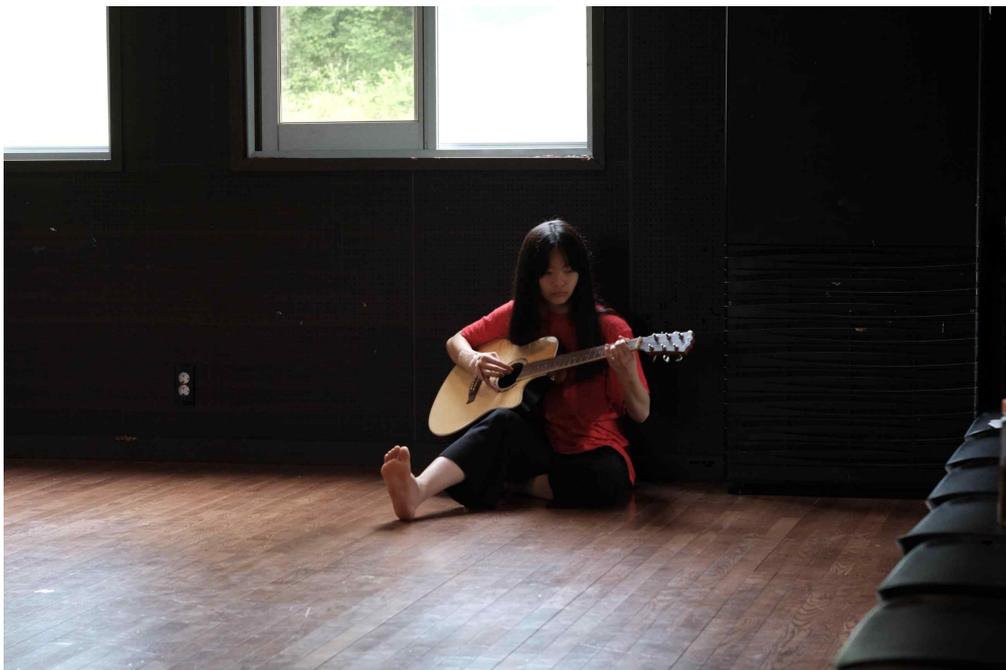
집 갈 생각을 하니 좋았다 근데 막상 뛰다를 떠나니 뛰다가 그림다. 프로그램은 재밌었다.



## 이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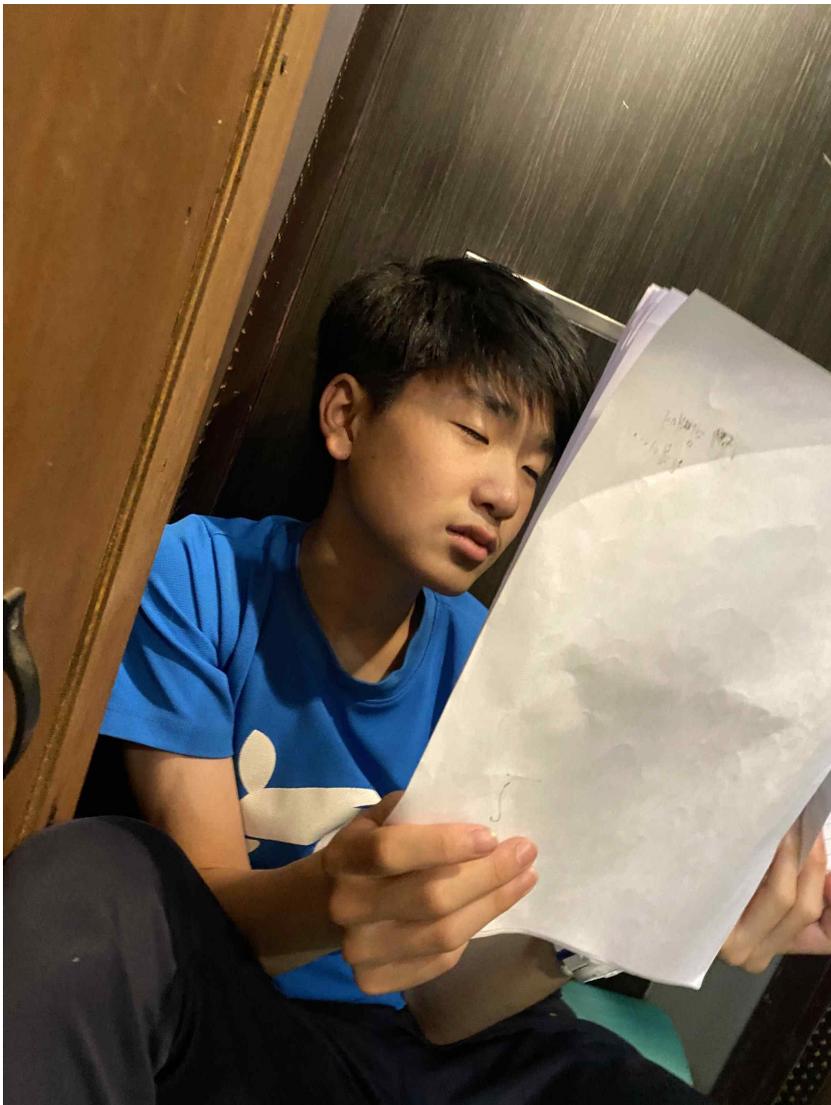
처음에 무빙에 올때는 솔직히 집에 있고 싶기도 했고 귀찮아서 좀 오기 싫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첫째 날에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다.) 뛰다는 간디학교에서만 딱 한 번 경험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다치고 아파서 잘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아플 때는 더욱 더 집에 가고 싶었다. 그래도 수업이 너무 재밌었다. 사실 다른 수업들이면 빼먹고 싶었을 텐데 뛰다 수업은 너무 재밌어서 빠지기 싫었다.. 우리 학번 애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낼 기회가 무빙빼고는 별로 없는데 몇 없는 무빙 시간 알차게 잘 보낸 것 같아서 좋았고, 좀 어색하다 싶은 애들과도 친해진 것 같아 기쁘다. 뛰다 쌤들, 우리쌤들, 무빙같이 보낸 우리반 애들한테 감사하다:-)

(연극이 끝나니까 뭔가 허전하다.. 이 50분을 위해서 2주동안..)



## 이지섭

프로그램도 좋았고 쌤들의 운영 방식도 좋았다. 그러나 애들과 트러블이 많았던 것이 아쉬웠던 것 같다.



## 백늘푸른

무빙이 끝났다. 그 재밌다던 2학년 뛰다 너와나의 대한 이해 아주 재대로 했다. 아주 항상 그랬지만 아무생각 없이 갔던 무빙에서 정말 소중한걸 많이 경험하고 배웠다. 뛰다에 있는 동안 영화속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비밀 수련장에 온 것 같았다.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느낌이다. 무얼 얻었는지는 모르겠다. 알 수 없는 성취감이 생겼다.



## 임소은

나는 5년 동안 무빙중에 가장 기대했던 무빙이다. 기대한 것 만큼 아니 더 많이 좋았다. 무빙이 좋은 점이 친구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아직은 그렇게 안친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점이 아쉽다. 좋았던거는 일단 연기를 배운거 옛날에는 연극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로 배우게 좋았다. 친구들과 같이 연습을 하고 하나 작품을 완성한게 신기했다. 공연 시작하기 직전에 분장실에서 나는 긴장안해 이런식으로 대화한게 기억에 남는다. 정말 떨리고 긴장이 되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다지 힘든건 없었다. 공연이 끝나고 엄마 아빠 동생을 보니 좋았다. 모꼬지때는 바다에서 논게 좋았다. 비록 물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모래가 너무 뜨거웠다. 암튼 그랬고 이번 무빙 레전드다. 우리 학번 최고다. 신발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 볼펜 못 찾아서 속상하다.



## 강아란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공연날이 다가올때마다 너무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아쉬웠다. 나날이 갈수록 재미있고 수중했던 하루였다. 적응도 엄청나게 빨리돼서 첫째날부터 체감상으로는 셋째날 같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벌레가 많은것만 빼면 단점이 없었다. 그치만 나의 즐거움 뒤에는 항상 쌤들의 고생이 있는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했었다. 간디학교를 오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해볼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였어서 더욱 좋았다. 매일 요가시간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조금더 부지런해질수 있는 시간이였어서 좋았다. 그리고 오기 전에는 친구들과 싸울까봐 많이 걱정을 했었지만, 크게 기억나는 싸움은 없였어서 참 좋았다. 수업 하나하나가 다 뜻깊고 좋은 가르침이 있는 수업들이였어서 더 아쉽게 느껴진다.

## 김동연

무빙을 마치는 소감: 무빙이 마지막이라서 정말 아쉬우면서도 기분이 좋다. 2학년 애들과 2주라는 시간을 뛰다에서 보내고 연극도 해봐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집에가서 너어어-----무 좋다. 히히



## 강규림

처음 무빙 준비할 때 너무 가기싫었는데 짐 쌀 때는 배낭으로 싸야돼서 진짜싫었다. 와서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다. 쉬다와서 그런지 되게 피곤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대보늘 받고 대본리딩(?) 같게 하는데 재미있었다. 진짜 애들이 하는 대화보는 느낌이었다. 처음엔 대본이 죽어도 안 외워 졌는데 하다보니까 외워져서엄청 신기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연기할 때 완전 부끄러웠다. 미술할 때 손으로 찍는게 되게 재미있었다. 그리고 공연때 완전 떨렸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후련했다. 되게 은근 재미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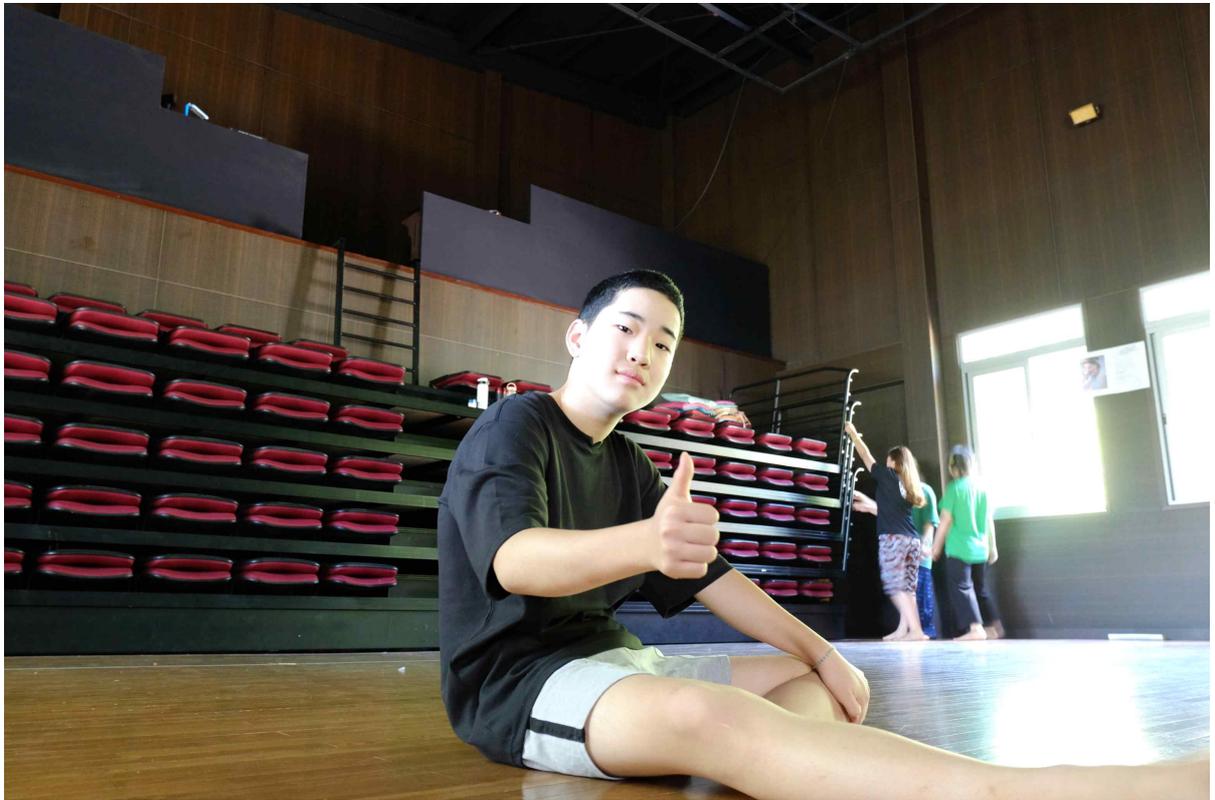
## 박석현

일단 너무 뛰다를 기대한 것 같다. 재밌긴 했지만 너무 기대했다. 그래도 그런대로 재미있었고 연습보다 더 잘 해서 좋았다.



## 김단오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상황과 경험으로 인한 성장을 한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하고 재밌고 알찼다



## 서지호

2학년무빙. 네게 그 결과는 연극. 옛날부터 걱정을 많이 했었다. 특히 유튜브 박제에 대해..... 하지만 춘천에서 화천으로 오는 길에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걱정은 다 털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다. 벌써. 지금은 낙산 바다 앞에서 글을 쓰고 있다. 시간 참 느리고 빠르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가물가물하다. 너무 폭풍 같은 2주여서 일까? 하지만 남은게 있다. 먼저 물리적인 것. 요가란 대단하다. 특히명상이..... 하루동안 유지한 정신력을 다잡고 평온하게 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친구를. 특히 호,후,채,단 팻(?) 뭐 암튼 이들이 어떤식으로 친해졌는지는 묻지 말기 바란다. 암튼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호전되었고 하루하루 지내면서 시간의 중요성 또한 강조 받았다. 매우 뜻 깊고, 피곤하고, 의미있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TWO WEEK 였다.



## 여민지

뛰다에서 수업이 많아서 좀 피곤하고 시간도 느리게 간 것 같지만 끝나니 뛰다에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다. 첫주에는 정말 피곤했다. 지루한 수업이 아닌데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둘째주에는 별로 안 피곤 했다. 뛰다쌤들도 재밌게 수업해주셔서 좋았다. 뛰다쌤들과 헤어져서 아쉬웠다. 공연 끝나고 시원하기도 했지만 아쉬웠다. 뛰다가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안친한 애들도 많다.



## 이기범

난 무빙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번년도는 특히 형 누나들이 재미있다고 해서 기대가 됐다. 처음에 갔을 때는 기대되고 또 기대 됐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너무 노잼이었다. 그래서 가기가 너무 싫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대본을받으니까 아주 재밌어 졌다. 순이가 귀여웠고 밥이 맛있고 폰규칙을 어긴게 약간 부끄러워 지기도하고 몰폰하고 왜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했나 너무 후회된다. 공연 무사히 마쳐서 뿌듯하고 좋았다. 고기도 맛있어서 좋았다. 한번더 가보고 싶다. 뛰다 쌤들 보고 싶다.



## 최규민

처음 무빙의 1주일은 뭔가 지루하고 심심한 느낌이 들었는데 (글쓰기 수업빼고) 나머지는 정말 좋았다. 뛰다를 나올 때 제일 아쉬웠던 건 뛰다 쌤들과 이제 다 친해진 것 같은데 많이 얘기를 못해봐서 아쉽다. 또 나는 이번 무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들이 있는데 귀여운 순이, 구조물, 지삽이의 용, 마지막날에 친구들이랑 했던 불놀이? 등등 전체적으로 재밌었다. 끝



## 김지후

정말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상쾌하고 나의 작품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 2학년 무빙이 생각보다는 재미는 없었지만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 많이 배웠다.



# 2020학년도 2학년 움직이는 학교 학생 평가서

## 1. ‘뛰다’ 프로그램은 어땠나요?

자세히 써주세요. 왜 재밌었는지? 왜 힘들었는지? 전체 일정상 프로그램 배치는 어땠는지? 수업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지?

요가(배요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다보니까 익숙해져서 나왔다. 팔이 아팠고, 중심잡기가 어려웠다.</li> <li>• 평소에 요가를 할 일이 없었는데 매일 요가를 해봐서 힘들지만 좋았어요.</li> <li>• 전반적으로 힘들었지만, 아침에 잠 깨우기 좋았다. 명상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기에 아주 좋았다.</li> <li>• 조금 다른 요가라서 새로웠고, 아침에 해서 재밌었다.</li> <li>•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해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침에 요가를 함으로써 오전에 텐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li> <li>• 아침에 뭔가 몸을 풀어주는 느낌이라 좋았다.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수업 때 터져서 슬펐다.</li> <li>• 아침마다 요가를 하니 개운해서 수업 집중이 잘되었다.</li> <li>•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가하는 게 힘들었다. 힘들어서 대충했던 경향이 있긴 하다.</li> <li>• 요가가 좋은 점은 몸이 개운해지는 것이고, 힘든 점은 아침이어서 귀찮다.</li> <li>• 솔직히 2주동안 잘한 적이 없다.</li> <li>• 요가 재밌었어요. 수고했어요.</li> <li>• 늘 아침에 개운할 수 있던 이유였던 것 같다.</li> <li>• 재미보단 정말 요가에 집중했다. 힘들었지만 하루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li> <li>• 힘들었지만 아침의 뻣뻣한 몸을 풀어주어 좋았다.</li> <li>• 개인적으로 뭔가 의식적인 예의나 행위가 많아서 마음에 들었다. 특히나 명상이 좋았다. 명상 중의 긴 호흡은 산소를 몸에 골고루 들게 하여 정신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유용하고 좋은 시간이었다.</li> </ul>

이미지 글쓰기(이주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렇게 글쓰기를 재밌게 한 건 처음인 것 같다.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하고 생각했다. 제일 좋았다.</li> <li>• 글쓰기가 평소에 재미없었는데 문법 같은거 상관 없이 자기가 그림보고 생각하는 걸 적을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li> <li>•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걸 글로 쓰는게 굉장히 특이하고 흥미로웠다.</li> <li>• 이것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글쓰기와는 조금 달라서 새롭고 다른 글쓰기보다 좋았다.</li> <li>• 글쓰기에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이 수업으로 그나마 좀 재밌어졌어요.</li> <li>•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수업. 평소엔 글쓰기를 안좋아했는데, 유독 뛰다식 글쓰기는 좋았다.</li> <li>• 나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li> <li>• 이미지로 상상하는 게 재미있었다,</li> <li>• 글쓰기가 재밌어지게 만들어주셔서 좋았다.</li> <li>• 솔직히 애들은 재밌다고 했는데 별로 재미없었다.</li> <li>• 글쓰던 게 재밌었어요. 수고했어요,</li> <li>• 글쓰기를 싫어했지만 좋아할 기회가 생겼었던 것 같다.</li> <li>• 뛰다에는 개인시간, 개인공간이 잘 없었는데 다같이 하는 수업이었지만 개인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였다.</li> <li>• 받자마자 그 느낌을 바로 꺼낼 수 있어서 신기했고, 우리의 글들이 대본이 된게 신기하다.</li> <li>• 생각나는 대로 쓰는 글이 꽤나 구체적이고 다양해서 놀랐다. 원래 글쓰기를 좋아하지만 더욱 특별한 글</li> </ul>

쓰기를 해서 좋았다.

### 몸으로 그림 그리기(이주야)

- 물감 놀이는 좋지만 옷에 묻는 게 걱정이 되었다. 동심 세계로 온 것 같았다.
- 큰 종이에다 아무렇게나 손으로 물감을 문대서 재미있었어요. 다 만든 그림이 멋있었어요.
- 옷에 묻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었다. 그리고 물감이 손에 닿을 때마다 따가웠다. 마음대로 그리고 싶었지만 약간의 제한이 느껴졌었다.
- 재미는 있었지만 물감이 잘 안지워지져서 아쉬웠다.
- 손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 재밌었다. 이긴 내년 20학번때도 했으면 좋겠다.
- 맨살에 물감이 묻는 것은 불편했지만 내 마음대로 작품을 만들어보니 재미있었다.
- 전체적으로 재미있었다. 손으로 찍어서 할 때 잘한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 물감이 옷에 묻는 건 싫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 재밌긴 했는데, 한명씩 돌아가면서 하는건 싫었다.
- 그림그리기가 재밌었어요. 수고했어요.
- 자유롭게 그림 그릴 수 있었던 게 좋았다.
- 흥미는 별로 없었지만 완성된 그림이 공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니 성취감이 느껴졌다.
- 아무 생각 없이 뿌리고 찍고 하는 반복적인 단순한 활동을 하여 좋았다.
- 평소에 그림을 항상 펜으로 자세하게 그려서 이런 그림은 낯설었다. 나쁘지 않은 수업이었지만 언제나 마지막 수업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다. 그래도 수업 자체는 좋았다.

### 이것이 연기인가(미농)

- 약간 공동체 놀이 같은 수업같았다. 놀면서 해서 좋았고, 걷는 수업도 재미있었다. 작년 영상을 봤는데 똑같이 해서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워서 좋았어요. 연기보다는 놀이하는 것 같았어요.
- 재미있고, 지친 일상속에서(2주차 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준 수업 같았다.
- 신기하고 새로웠다.
- 음.. 뭐랄까 연기를 처음 해보는 데 공연까지 하라고 해서 부담이 됐었는데, 이 수업이 부담을 없애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 오잉.. 공연 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 처음으로 연기를 했는데 재밌고 신기했다.
- 우리가 쓴 글이 대본으로 된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연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좋았다.
- 수업 중 제일 재밌었던 것 같다.
- 연기해본게 재밌었어요. 수고했어요.
- 공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제목 그대로 연기에 대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 내 안에 실력 꺼내준 멋진 프로그램이다.
- 5년만의 연기였다. 정작 진지함을 담아내는 연기는 거의 없었지만 매우 재미있었다. 서로 연기하는 걸 보면서 웃는 것도 좋았고, 연기를 할 때 그 짜릿함은 기억에 남는다.

### 움직임(시총)

- 아프리카 춤을 처음 배웠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했다. 새로운 동작을 해서 새로운 느낌이었다.
- 계속 이상한 움직임을 해서 재미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수업이 재미있었어요.
- 특이했다. 춤을 배운대서 무용인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 춤이라서 흥미로웠다.
- 다른 춤이 아닌 아프리카 춤이라는데 되게 재밌었다.
- 수업들 중에 제일 재밌는 수업이었어요, 쌤이 너무 재밌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 이 수업도 글쓰기 수업처럼 재미있었다. 근데 공연때는 긴장되어 제대로 못했다.
- 몸을 움직여서 수업을 해보니 재밌었다.
- 아프리카 춤이 재미있었다.
- 아프리카 춤이 신기했다.
- 어렵긴 했는데 춤을 배워서 좋았다.
- 움직임이 재미있어요. 수고했어요.
- 공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수업이 굉장히 신선했다. 처음 해보는 수업이었다.
- 이 아프리카 춤을 춰서 자심감이 올라갔다.
- 신나는 분위기의 수업 중 대표적이었다. 춤도 많이 오랜만에 춘 것이었는데 다같이 추는 효과 몸동작이 좋았다. 항상 앉아서 하던 수업 중에 끼어있어서 다행이었다.

### 소리 만들기(류슬)

- 소리를 만드는 게 별거 없구나, 간단한데 각종 소리를 겹쳐서 멋진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았다.
- 악기나 물건들로 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니 신기했어요.
- 모두가 같이 만든 소리를 합쳐서 들었는데 신기했다.
- 소리를 만들어보니 신기하고 뿌듯했다.
- 일상에서 별 감흥없이 들던 소리들이 음악처럼 변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 여러 악기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다양한 소리를 찾아서 소리를 만들어보니 신기하고도 재밌었다. 근데 수업이 너무 적어서 아쉬웠다.
- 소리 만들어서 들어보는 게 재밌었다.
- 어려웠다.
- 사소한 소리가 악기가 되는 게 신기했다.
- 소리만들기가 재밌었어요. 수고했어요.
- 다양한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다.
- 귀가 힐링되는 시간이었다.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멋지다. 노래 음을 만든 것이
- 개인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걸 매우 좋아한다. 대부분 소리를 조합하여 단순한 소리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박자도 있어서 너무 좋았다. 꼭 다시 하고 싶은 수업 중 하나다.

### 장면 만들기 및 연극 연습(전체)

- 옛날에 꿈이 배우였다. 그래서 이번 무빙을 가장 기대했다. 정말 재밌었고 힘들었다. 일반 학교를 다녔다면 꿈도 못꿀 것 같다. 좋고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일이다.
- 요섭쌤이 우리를 연극 잘하라고 계속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셔서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재미있었어요.

- 대본 외우기가 힘들었지만 보면 볼수록 내가 빠져드는 느낌이었고 내가 정말 배우가 된 느낌이었다. 최고였다.
- 새롭고 다른 연기와 차이점을 둔게 좋았고 브릿지가 좋았다.
- 장면 연습을 할 때 재밌기도 했지만 많이 힘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 아.. 힘들었다.
- 내가 쓴 글, 수업 때 배운 움직임을 사용해서 연극을 만들어보니 신기하고 재밌었다. 하지만 대본을 외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 지치긴 했지만 재미있었다. 하루종일 해서 피곤하고 쉴 시간도 없긴 했지만 재미있었다.
- 엄청나게 신나고 공연을 만들 땐 힘들었지만 다하고 나니까 뿌듯했다.
- 솔직히 내 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연습한거 보다 더 잘해서 좋았다.
- 모두들 수고했어요.
- 처음으로 하는 연극이라 많이 기대하고 기대를 잘 충족시켜준 듯하다.
- 나를 이해하고 모두를 의지하고 협력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배우가 된 느낌
- 내가 맡은 역할이 대부분 뛰어 다니고, 소리 지르고, 수다 떠는 내용이라 쉽고, 본성도 잘 나오고, 재미도 분명히 있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보는 것도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던 데다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쌓아가는 신념을 가진 나로서는 다 좋았다. 연기는 언젠가 또 해보고 싶다.

## 2. 연극 작품 및 공연은 어땠나요?

<p>희곡 내용은 어땠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지 1주일 밖에 안됐는데 벌써 나를 파악 하셨나? 정말 나 같이 대사가 좋았다.</li> <li>• 애들이 직접 글쓰기 한 거를 대본에 넣어서 이상하지도 않았고, 재미도 나름 있었던 것 같아요.</li> <li>• 처음엔 자극적이길 바랐어서 실망했었지만 합을 맞춰올수록 너무 좋았다.</li> <li>• 우리가 쓴 글로 대본을 만든 점이 새롭고 뿌듯했다.</li> <li>• 제일 걱정했던 부분인데 저희 글을 최대한 살리면서 재밌게 짜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첫 연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것 같아요.</li> <li>• 나쁘지 않음. 요섭쌤이 단 며칠만에 대본을 짜셨다는게 놀라웠다.</li> <li>• 좋았다.</li> <li>• 진짜 우리들 대화를 보는 느낌</li> <li>• 화천 코로나 거짓 기사가 찌인게 신기했다.</li> <li>• 좋았다.</li> <li>• 모두 좋아요</li> <li>• 좋았다.</li> <li>• 만족스럽다. 코로나라는 악재를 연극의 소재로 풀어낸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li> <li>• 금적</li> <li>• 우리가 쓴 글의 내용이 입체화 되는 과정을 보며 큰 뿌듯함을 느꼈다. 내용은 매우 좋았다.</li> </ul>
<p>배역 배정은 어땠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공, 조연 이렇게 없어서 좋았다. 다들 모두가 주인공인 느낌.</li> <li>• 이상한 역할이 아니라 나여서 좋았어요,</li> <li>• 다 다들 성향에 맞게 잘 배정 된 것 같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당하고 알맞았던 것 같다.</li> <li>• 흑역사가 될 것 같지만 좋은 경험 해본 것 같아요.</li> <li>• 팬층</li> <li>• 좋았다.</li> <li>• 딱 적당한 것 같아요.</li> <li>• 이번 역도 좋았지만 나는 규민, 지호나 소은, 규림, 민지 그런 대화도 좋다.</li> <li>• 별로..</li> <li>• 혼자 주인공이 아니라 다 주인공처럼 돼서 좋아요</li> <li>• 나름대로 만족한다.</li> <li>• 대사, 행동 등이 평소의 나와 거리가 멀어 어려움을 느꼈다.</li> <li>• 그 친구에 맞게 잘 배정한 것 같다.</li> <li>• ‘밀덕’이라는 주제가 나의 연기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좋았다.</li> </ul>
<p>무대, 소품, 음향, 조명 등은 어땠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다. 조명 많이 받으면 탈모 빨리 오는데..</li> <li>• 조명 화려해서 좋았어요.</li> <li>• 좋았어요.</li> <li>• 왠지 신기했다.</li> <li>• 전체적으로 처음 보는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만족스러웠어요.</li> <li>• 멋졌다.</li> <li>• 좋았다.</li> <li>• 완전 좋았어요,</li> <li>• 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고, 특히 그림이 최고다.</li> <li>• 보통이었다.</li> <li>• 좋아요,</li> <li>• 팬층았던 것 같다.</li> <li>• 이런 쪽을 잘 몰라서 그냥 멋있었다.</li> <li>• 간지났다,</li> <li>•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 어땠냐고 묻는다면 ‘훌륭하다’뿐이다.</li> </ul>
<p>공연 발표는 어땠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말 떨렸다. 시작하기 전에 분장실에서 떨린다고 했던 대화가 기억에 담는다.</li> <li>• 떨렸지만 다하고나니 뿌듯하고 시원했지만 아쉬웠어요. 연습때랑 똑같이 연극했어요,</li> <li>• 연습때보다 실수가 적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다같이 노력해서 일군 무대라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최고였다.</li> <li>•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끝나니 뿌듯했다.</li> <li>• 생각보다 떨리지 않고 재밌었어요,</li> <li>• 긴장되고 떨렸다.</li> <li>• 긴장됐지만 나름 재밌었다.</li> <li>• 떨렸지만 재밌었어요,</li> <li>• 준비과정은 힘들었는데 끝내니 뿌듯했다.</li> <li>• 연습보다 잘해서 좋았다.</li> <li>• 히히 떨려면서 재밌었음.</li> <li>• 좋았다.</li> <li>• 조금 아쉬웠고 많이 미숙했지만 우리 모두가 50분동안 정말 하나가 된 느낌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떨렸다.</li> <li>• 당당하게 했다. 가족들도 지켜보고 있고 촬영까지 당하는 마당이라 긴장이 엄청 났지만..</li> </ul>
--	--

### 3. 생활하기에는 어땠나요?

숙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무 습하고 좁았다. 하지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li> <li>• 첫 주차에는 매우 습했지만 제습기 2대 켜니까 괜찮아짐.</li> <li>• 5명이 쓰기엔 좁았지만 ??? 건물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li> <li>• 다 좋은데 벌레가 조금..</li> <li>• 시설도 좋고 온수도 잘 나와서 좋았어요,</li> <li>• 개 좋음</li> <li>• 진짜 좋았다.</li> <li>• 벌레가 출몰하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습하고 더웠지만 좋았다.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li> <li>• 습해서 힘들었다.</li> <li>• 히히 너무 습합니다.</li> <li>• 벌레가 많을 뿐 나쁘지 않았다.</li> <li>• 불편했던건 많이 없었다,</li> <li>• 뛰다 숙소 좁다. 너무</li> <li>• 방충망에 생긴 구멍과 엄청난 습도를 제외하면 다 좋았다,</li> </ul>
식단 및 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다. 치킨이 좋다.</li> <li>• 흠 맛있었어요.</li> <li>• 간신을 가끔씩 빼먹어서 속상했다. 스파게티 먹고 싶었다.</li> <li>• 아주 맛있고 좋았다.</li> <li>• 맛있는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li> <li>• 쓰엄.. 나쁘지 않음.</li> <li>• 저녁에 너무 배고팠다.</li> <li>• 식단표랑 매일 달라서 조금 그랬음. 기름진 게 자주나와 속이 안좋음. 간식 안 나온 날이 있을 때 좀 그랬음.</li> <li>• 맛있었다.</li> <li>• 최고</li> <li>• 한식이 너무 맛있었다.</li> <li>• 좋았다.</li> <li>• 맛있었다. 만족했다.</li> <li>• 적절하다.</li> <li>• 일반 식품과 친환경 식품의 적절한 조화가 좋았다. 맛도 좋았다.</li> </ul>
공연장, 스튜디오, 식당, 카페, 기타 주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는 너무 좋았다. 와이파이 돼서 좋았다. 극장이 넓어서 좋았다. 구조물에서 놀 수 있어서 좋았다.</li> <li>• 다 좋았어요.</li> <li>• 최고</li> <li>• 벌레(나방이..)</li> <li>• 깨끗하고 좋았어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걸 좋았다.</li> <li>• 짱 좋다.</li> <li>• 팬찮았다.</li> <li>• 깨끗하고 좋았다.</li> <li>• 좋음</li> <li>• 좋았다.</li> <li>• 좋았다.</li> <li>• 쾌적했다. 실내에서 활동하기 편했다.</li> <li>• 예쁘다.</li> <li>• ‘파리’ 이 단어라면 모든 게 설명이 된다.</li> </ul>
--	--

#### 4. 나의 평가

<p>나는 '뛰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이니까 열심히 참여했죠.</li> <li>• 네</li> <li>• 네 정말 좋았어요.</li> <li>• 네, 그림그리기는 좀 대충했어요.</li> <li>• 네 최대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li> <li>• 네</li> <li>• 네</li> <li>• 보통</li> <li>• 네</li> <li>• 네</li> <li>• 네</li> <li>• 예</li> <li>• 네</li> <li>• 당연한 말씀을</li> <li>• 최대한 참여했습니다.</li> </ul>
<p>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 잘 성장했어요.</li> <li>• 네</li> <li>• 네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li> <li>• 네네</li> <li>• 좋은 경험이었어요.</li> <li>• 네</li> <li>• 네</li> <li>• 약간</li> <li>• 네</li> <li>• 네</li> <li>• 아니요</li> <li>• 예</li> <li>• 네</li> <li>• 내 미래가 정해졌다.</li> <li>• 그림요 물론</li> </ul>
<p>일과 및 규칙은 잘 지켰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 피곤해서 잠만 잤어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li> <li>• 핸드폰 규칙을 한번 어겼었다. 부끄럽다. 죄송합니다.</li> <li>• 조금 부족했어요</li> <li>• 대체로 잘 지켰습니다.</li> <li>• 음..아니요</li> <li>• 아니요</li> <li>• 보통</li> <li>• 네</li> <li>• 아니요</li> <li>• 네</li> <li>• 예</li> <li>• 네</li> <li>• 미안합니다</li> <li>• 네 어기지 않고 견디기</li> </ul>
<p>'뛰다'에서의 2주간 아쉬운 점이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었어요.</li> <li>• 끝나서 아쉬워요.</li> <li>• 아니요. 다만 좀 짧은 듯 합니다.</li> <li>• 아픈 친구들이 많았다는거</li> <li>•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li> <li>• 글쓰기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났다.</li> <li>• 없어요</li> <li>• 없습니다</li> <li>• 딱히</li> <li>• 아니요</li> <li>• 읍내 못나간거..</li> <li>• 아니요</li> <li>• 없음</li> <li>• 아쉽다 1주 더하자.</li> <li>• 일정이 너무 빠빡했던 점.</li> </ul>

5. 문항에 없지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적어주세요!

- 쌤 사랑해요
- 뛰다 쌤들 그리워요.
- 너무 좋았고, 모든 쌤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없다
- 식단이 자꾸 바뀌어서 곤란했고, 양이 적어 배고팠다. 그리고 기름진게 자주 나와 속이 안좋았음.
- 파이팅
- 뛰다 파이팅 하하
- 쌤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 뛰다쌤들 좋다.

# 나와 나를 둘러싼 것들

2020 간디 무빙스쿨 연습대본

브릿지 장면 : 움직임

## 1. 걸기 1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 방향, 부딪치지 않고 밀쳐내기, 엇갈리기.

## 2. 춤 1

아프리카 춤 첫번째 동작. 앞 뒤로 움직이다 흠어진다.

## 3. 걸기 2

바닥의 패턴대로 걷는다. 만나지는 않는다. 속도가 변한다. 멈춘다. 쓰러진다. 일어나 걷는다.

## 4. 춤 2

아프리카 춤 두번째 동작. 무대 가운데서 한 덩어리가 되어 모인다. 다시 자리로 가 앉는다.

## 5. 칠교 놀이

세그룹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동물을 만든다.

## 6. 춤 3

아프리카 춤 세번째 동작.

## 7. 컨택

바닥에 누워서 컨택을 시작한다. 둘씩 셋씩 몸이 만나고 헤어지는 움직임.

## 0. 화천에 코로나 확진자 출현

---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바닥에 앉아 있다. 격렬한 움직임 뒤라 숨이 가쁘지만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다만 자기 말을 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한 뒤 다시 마스크를 쓴다.

안내방송 어제 춘천 코로나 간접접촉 관련해서 화천 읍내 주요 동선을 알려드립니다. 카페, 감성커피, 커피에 반하다, 메가커피. 식당, 산천어춘천닭갈비, 김밥천국, 짬장. 술집, 뉴욕야시장. 상점, 엠마트. 검사결과가 17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해당 장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무슨 소리야. 코로나 감염환자가 화천읍내를 돌아다녔다구?

아란 무슨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신대?

단오 김밥천국 갔다가, 닭갈비 먹으러 갔다가 저녁엔 또 뉴욕야시장에서 술도 먹었군.

소은 마스크는 쓰고 돌아다녔나? 집에 가만히 있지,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너무해.

지호 우린 괜찮을 거야. 우린 읍내 나간 적 없잖아.

기범 다행이다. 휴일에 읍내 가서 롤 한 판 하러 가려고 했는데 뭐다 선생님들이 못가게 했잖아.

지후 그러게. 말 듣기 잘했네.

늘푸른 그런데, 양샘 어제 읍내 나갔다 오시지 않았나?

석현 맞아. 식재료 산다고 엠마트 가셨는데.

지섭 아, 선생님. 어떡해요. 저 아까 선생님이랑 어깨 스쳤는데.

채영 나도. 선생님이 내 손목 괜찮냐며 여기 만지셨는데. 어떡하지.

민지 야, 괜찮아. 너무 호들갑떨지마. 확진자도 아니고 간접접촉한 사람이라잖아.

규림 간접접촉이라면 확진자랑 직접 만난건 아니라는 거지?

동연 아직 확진자는 아니래. 이따가 다섯시에 검사결과 나온다잖아.

지섭 그래도 만에 하나 확진자면 어떡해?

민지 그 사람도 확진자랑 어떻게 만난지도 몰라. 그냥 확진자가 탔던 버스랑 같은 번호 버스를 탔다는 거니까. 자꾸 확대하고 과장하니까 불안만 커지잖아.

단오 게다가 양샘이랑 그 사람이랑도 직접만난 것도 아니구.

지호 그래 괜찮을 거야.

아란 너무 안심하진 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끈질긴데. 사람 몸 밖에 나와서도 며칠씩 살아있다고 했거든.

소은        엠 마트 진열대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선생님 옷에 달라붙어 왔을 수도 있지.

.....

채영        아! 안돼. 그럼 나도 코로나 감염되는 거야?

.....

지후        야. 우리는 걸려도 괜찮아.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대.

.....

기범        난 내가 걸리는 건 괜찮은데 나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죽게 될까 봐 그게 무서워.

.....

지섭        맞아. 나도 그게 싫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자는 거지.

.....

지호        애들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코로나 감염재생산수 R0가 1.7이라고 하니까, 그 확진자가 주변에 퍼트릴 사람이 1.7명이라는 얘기거든. 그사람이 감염되고 난 뒤 격리되기 전까지 100명의 사람을 만났다면 화천에 온 그 사람이 감염되었을 확률은 1.7%란 얘기고 그 사람이 또 화천에서 와서 100명의 사람들을 만났다면 다시 우리 양샘이 감염되었을 확률은 1.7% 곱하기 0.017이니까 약 0.03%가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다시 우리한테 감염될 확률은....

.....

늘푸른     그래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호야. 난 그것보다 코로나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함부로 공개되는 게 꺼림칙 해.

.....

규민        맞아 나도 좀 그랬어. 무빙 오기 전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적어 내라고 해서 냈는데, 사실 좀 불편했어. 뭔가 통제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

석현        난 뭐 집에만 있어서...

.....

규림        나도 쭈욱 집에만 있었어. ㅎㅎ

.....

규민        그리고 단지 코로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들을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 신천지때는 그 교인들을 거의 죄인 취급하고, 얼마전 이태원 확진자 있었을 때는 게이들을 엄청 비난했었잖아. 사실 게이바도 아니었는데.

.....

기범        그래. 네말 듣고 보니 좀 그렇다.

.....

지섭        그러니까 애초에 조심했어야지.

.....

룡수        애들아. 아까 그 메시지 가짜 뉴스래. 화천에 그런 사람 온 적 없대.

.....

다같이     뭐야! 괜히 놀랬잖아./ 미안해요. 양샘. /휴 살았다. /그럴줄 알았어. /그러게 그렇게 걱정할 일 아니라니까./ 와 읊내 가자. / 왠지 더 기분 나쁘네. / ...

.....

.....

.....

## 1. 평화를 사랑하는 밀덕들의 대화

단오        사실 지호는 정말 착해요. 규민이도 순수해요.

지호        저는 통통통이에요.

규민        평화통일 소모임에서 활동해요. 우린

지호        내가 좋아하는 거요?

규민        총이요.

지호        멋있잖아요.

단오        규민이네요 정말 평화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규민        탕크, 전투기, 여러 군수물자들 그런거 좋아해요.

지호        그냥, 보면 멋있어요. 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또 여러 총기들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냥 그런게 재미있어요.

규민        걸모습을 보면 멋있어요. 아뇨. 무섭진 않아요. 진짜 총을 본적은 없거든요.

단오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애들은 전쟁의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 평화통일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고, 어떤 전술이 사용되었고, 또 어떤 무기들이 사용되었는지 공부하는게 재미있었던거지 전쟁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지호        그냥 예술적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규민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단오        애들은 그냥 착해요. 착한 애들이에요.

규민        저는 영화보는 거 좋아해요

지호        난 동생이랑 몸으로 노는 거 좋아해요.

규민        난 찬바람 나오는 에어컨이 좋아요

지호        난 에어컨 바람보다는 선풍기 바람을 좋아해요

규민        난 연어초밥 좋아해요.

지호        난 산에 가서 땅을 파고 노는 거 좋아해요.

규민        난 솔의 눈이란 음료를 좋아해요.

지호        야채는 생으로 먹어야 맛있어요.

규민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지호 총!

규민 총이에요.

단오 그래도 너희들이 좋아해서 만들어서 갖고 노는 그 총이 사람들 죽이는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건 사실 이잖아. 보통 사람들 눈엔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일 거 같지 않아? 비폭력 학교인 간디학교에 다닌다는 사람이 그런다는게 말야.

규민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짜라고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난 좋으니까 계속 하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고민이 되기도 하구요.

지호 우리같은 밀덕들은 거의 대부분 평화주의자예요. 저는 외국에 이런 취미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린 그냥 무기의 형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단오 너희들의 취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예술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규민 예술작품?

지호 맞아, 디오라마작업을 할 때 전쟁의 잔혹함을 아주 리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거의 예술적으로.

규민 아, 그러니까 그 작품들이 전쟁의 잔혹함을 말하게 한다, 그런 말인가.

단오 라이언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처럼. 철저한 고증과 리서치를 통해서.

지호 마치 한편의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말이지. 그거 괜찮다. 평화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네.

규민 맞아. 지금도 여전히 전쟁중인 나라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시리아 같은 데,

지호 미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그걸 이용해서 무기 팔아먹고.

단오 웬지 할 이야기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평화메시지를 담은 디오라마 작가들이 나오겠네요.

지호 우리 뭐 부터 시작해볼까.

규민 일단 총으로 하자. 총 위에 사람들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거야.

지호 야 너 갖고 있는 총 뭐냐?

규민 000 총인데 너는?

지호 난 XXX 일거든. 너 몇 주울이나? 난 1.2주울로 올려놨는데.

규민 그래....좋아. 그럼 내가 그것 말고 총이 2개 더 있으니까....

지호 그럼 주제는 시리아 내전으로 할까?

## 2. 바다

소은        바다의 끝은 어디일까?

민지        끝이란게 있어도 보이지 않을거야

규림        끝이 안보이니까 저 풍경이 더 아름다워 보여.

단오        나는 검정이고 싶다. 무슨 색을 만나도 그 색을 품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검정.

소은, 민지, 규림 함께 깔깔 거리며 손뼉치고 웃는다.

소은        와 우리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잘 지내니?

규림        나야 뭐 잘 지내지. 직장이 없는 거 빼고.

민지        야, 아직도 직장 못 구했어? 우리 나이 이제 서른인데.

규림        몰라. 난 뽕송뽕송한 이불에 들어가서 늦잠자는 게 낙인데, 취직하면 그런 것도 못하잖아.

민지        난 돈이 좋아. 돈만 있으면 갖고 싶은 물건도 살 수 있으니까.

소은        민지야 너도 늦잠자는 거 좋아했잖아.

규림        맞아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민지        맞아, 그랬지.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못해. 너무 바빠.

단오        사람들은 그렇다. 말을 몇마디 나눈 것으로 서로의 색이 물들고, 때론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진하게 색을 물들인다. 하지만 검은 색의 사람은 물들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들을 품을 수 있다.

소은, 규림, 민지는 까르르거리고 손뼉치며 수다를 떠다.

소은        난 옛날엔 좋아하는게 엄청 많았어. 엄마냄새가 나는 손수건이랑 옷도 좋아했고, 아빠랑 까만색 쿠엔크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좋아했고, 햇살 따뜻한 내 방에서 잠자는 것도 좋아 했구.

규림        나도, 매미 우는 나무그늘에 누워있는 거, 겨울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핸드폰하면서 굴먹는 거 너무 좋아했어.

민지        난 고양이 부드러운 털을 좋아했지. 귀엽고 귀여운 강아지도 좋아했어. 가족들도 좋아, 동생 빼고.

소은        난 내 긴 머리카락이 좋아. 찰랑찰랑 거리는 이 느낌.

규림        난 중단발을 좋아했지.

민지        난 선물받는 게 좋았어. 그냥 뭐든 선물이면 다 좋았지.

소은        극장같이 넓은 곳에서 나 혼자 노래부르는 거 정말 좋아했어.

민지        나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는데. 귀에 맴도는 노래.

규림        맞아, 혼자 집에서 아이돌 노래 크게 틀어놓고 영상보는 거 짱 좋았지.

단오        그럼 그걸 지금도 하면 되잖아. 너희가 좋아하는 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잠시 침묵.

민지        그건 옛날 일이지. 지금은 사는게 힘들어.

소은        맞아. 매일 직장상사한테 갈굼당하고, 야근해야 되고.

규림        정말이지 취직하는 거 겁난다. 하지만 백수도 나름 힘들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민지        그러니까 일단 돈이라도 벌어야지.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규림        그래도 넌 돈이라도 벌 수 있으니까 좋겠다.

소은        그냥 뭐라도 해. 카페라도 차리든가.

규림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지.

민지        맞아. 돈이 문제야. 돈.

단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색이었는지 잊는다. 그리고 검정이 된다.

### 3. 별

석현과 늘푸른, 채영과 지후가 옥상 위 좁은 통로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다.

석현 야 여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푸른 괜찮아. 별로 안 위험해. 조심 조심 가면 돼.

석현 너무 높아서 어지러워.

푸른 니 발만 봐. 밑에 보지 말고.

석현 야 떨어질 것 같애.

푸른 조금만 조심해. 거의 다 왔어.

석현 아 살았다. 겨우 도착했어.

푸른 어때? 높은데 오니까 좋지?

석현 자동차 불빛이 마치 반디불 같아.

푸른 삼겹살에 비빔면이 먹고 싶다.

석현 ㅎㅎㅎ, 팔도 비빔면.

푸른 눈 오는날 창문 살짝 열어놓고 펄펄 내리는 눈을 하염없이 보고 싶다.

석현 이불 속에서 롤 게임하면서?

푸른 응. 눈 오는 날 롤 게임하면서...

석현 그래도 롤은 모바일보다는 피시에서 해야 제맛이지.

푸른 맞아.

석현 근데 별이 하나도 안보이네. 이렇게 높은 곳에 왔는데도 안보여.

푸른 그러게...도시의 하늘은 너무 밝아. 그래서 별이 숨어 버렸어.

석현 괜찮아. 그래도 밤 하늘의 별보다 더 반짝이는데 내 옆에 있으니까.

푸른 야- 오글거려.

석현 나 너 좋아해.

푸른 나도 좋아해.

채영 야 여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지후 괜찮아. 별로 안 위험해. 조심 조심 가면 돼.

채영 너무 높아서 어지러워.

지후 니 발만 봐. 밑에 보지 말고.

채영 야 떨어질 것 같애.

지후 조금만 조심해. 거의 다 왔어.

채영 아 살았다. 겨우 도착했어.

지후 어때? 높은데 오니까 좋지?

채영 자동차 불빛이 마치 반디불 같아.

지후 아 갑자기 기타 치고 싶다. 일렉기타.

채영 나도. 과자랑 우유먹으면서 조용히 기타치는 거 좋아.

지후 넌 또 뭐가 좋아?

채영 보들보들하고 새침한 고양이. 새벽 공기냄새. 비 온 뒤 흙냄새. 풀 냄새 사이로 들리는 풀벌레 소리. 갓 마른 빨래 냄새. 그리고...

지후 연필로 글씨 쓸 때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

채영 응 맞아!

지후 난 친구가 좋아. 기분 안 좋을 때 내 얘기 들어주는 친구.

채영 근데 별이 하나도 안보이네. 이렇게 높은 곳에 왔는데도 안보여.

지후 괜히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왔는데 별도 못보고.

채영 괜찮아. 그래도 밤 하늘의 별보다 더 반짝이는게 내 옆에 있으니까.

지후 야, 오글거려.

채영 나 너 좋아해.

지후 나도 좋아해.

#### 4. 달과 물고기

지섭과 룡수, 기타와 반도네온을 연주한다.  
소은이 카림바를 연주한다.

지섭        너 그거 알아? 지구는 둥글지 않아. 평평해.

룡수        뭘 소리야.

지섭        자전 공전 그런거 다 거짓말이야.

룡수        무슨 바람빠지는 소리하고 있어.

지섭        저기 달 보이지. 사실 저건 내가 매일 밤마다 하늘에 띄우는 거야.

룡수        지섭아. 무슨 힘든 일 있어? 왜 그래?

지섭        달은 전세계인의 어둠을 비추는 전등같은 거야. 사람들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매일 달의 모양이 바뀌는 건 내가 그날 그날에 맞는 달을 걸어 놓기 때문이지.

룡수        아 그렇구나. 넌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싶구나.

지섭        난 저 둥근 달이 좋아.

룡수        저 둥근 달처럼 더 완벽해 지고 싶은 거구나.

지섭        난 가족이 좋아. 엄마 아빠도 좋지만 형이 정말 좋아.

룡수        형은 너에게 스타구나.

지섭        응, 난 우주 대스타가 될거야.

셋이 다시 연주를 시작한다.  
연주하는 동안 소은이 노래한다.

소은        .....

룡수        만약에 물고기처럼 자유롭다면 좋을까?

지섭        저 그림 속 고래처럼?

룡수        응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

지섭        애초에 바다엔 왜 간 거야?

룽수        내가 바다에 간 이유는 고래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야. 물고기는 내 말을 전부 들어 줄 거 같았거든.

지섭        바다물은 너무 오염됐어. 그래서 물고기들도 변해버린 거야.

룽수        난 배에 몸을 기대고 바다속을 내려다 보았어.

지섭        맞아 그때 거대한 푸른수염 고래가 수면아래까지 올라왔다 그랬지. 뿌우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고 했지?. (지섭은 반도네온으로 고래가 냈을법한 소리를 낸다.)

룽수        고래가 나한테 말했어. 심심할 땐 언제라도 와,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바다속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속임수도 없고, 치졸함도 없어. 보이는게 다야. 네가 보고 있는게 진짜야. 실망하거나 후회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지섭        애초에 니가 간 곳이 바다였어? 애초에 니가 본 게 고래가 맞아?

룽수        (웃음) 사실 이걸 다 꿈이야. 난 바다에 가지도 않았고, 고래를 만나지도 않았어. 이 애긴 그냥 슬픈일이 있을 때 부르는 노래야. 화가 날 때 샌드백을 치고 신나게 자전거를 타는 몸부림이지. 그럼 답답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안되면 .....

지섭        안되면?

룽수        명상을 해.

지섭        명상? 어떻게?

룽수        이렇게. 그럼 잔잔한 바다처럼 마음이 평온해 져.

룽수가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들어간다.

지섭이 반도네온을 연주한다.

## 5. 생각의 안식처

아란 여긴 생각의 안식처다. 가끔씩 여기 오면 나 혼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생각에 잠긴다. 머리를 빗으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즐긴다. 머리카락을 스치는 빛의 느낌이 좋다. 소리를 따라 생각들이 피어오른다. 어디선  $\text{ㄹㄹ}$ 가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가 좋다. 그리고 내 머리에서 나는 삼푸향도 좋다. 좋은 향기에 행복해진다. 난 낭만적인 것이 좋다. 낭만적인 것이면 뭐든지 좋다. 어릴적 부모님과 서울랜드에 간 기억이 떠오른다. 이런 낭만적인 생각들을 하다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기도 한다. 이 지구는 얼마나 계속 아파해야 하는지,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고통은 어떻게 끝나게 될지, 또 난 무얼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지 생각하다보면 어느새 그 답을 알게 된다.

기범이 동연이와 롤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기범 난 축구 좋아해.

동연 그래. 나도 축구 좋아.

기범 팀플레이로 골을 넣는게 너무 아름다워.

동연 응 나도 그래. 친구들이랑 노는게 좋아.

기범 골을 넣으면 누군가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것처럼 쿵쿵대.

동연 농구도 그래. 좋아.

기범 난 강아지 엄청 좋아해.

동연 응, 나도 인스턴트 음식 좋아.

기범 귀가 뽀족하고 주둥이가 튀어나온 포메라니안 종류 좋아해.

동연 피자, 치킨, 햄버거 이런거 다 좋아해.

기범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건 친구야.

동연 응 나도 친구가 제일 좋아.

아란 어디선가 사람들 목소리가 들린다. 가끔씩 이 공간엔 내 추억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다 있다. 지난 번엔 내 어릴적 아빠가 나타났었다. 담배피던 시절의 아빠. 옛날엔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오늘은 또 누가 나타날까? 어? 저건 옛날 간디학교 다닐적 친구들인데. 기범이랑 동연이잖아. 기범아. 동연아.

동연 어?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기범 누구지?

아란 애들아 나야, 나. 아란이.

동연 아란이?

기범 아란아. 와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동연 아란이 너 정말 멋있어졌다. 근데 여긴 어디야?

아란 여긴 내 생각의 안식처란 곳이야. 여기 온거 환영해.

기범 어, 내가 언제 여기 와있지?

동연 여기 혹시 게임 속 아니야?

아란 아직도 너네 게임하니? 아직도 롤 해?

기범 야, 롤은 언제적 게임인데... 지금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게임이야. 그리고 거의 게임 속에서 살아. 게임 속이 훨씬 안전하거든.

동연 실제로 사람 만나 본 지도 오래 되었어. 요즘은 직접 만나는 것도 거의 못하잖아. 그래서 게임이 이렇게 발전했어. 이젠 게임 속 내가 진짜인지 컴퓨터 앞의 내가 진짜인지도 헷갈려.

기범 엄마가 게임하지 말란 말도 안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란 하지만 서로 만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 무슨 재미로 살아?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는 거야?

동연 직접 만나서 노는 건 벌써 포기했어. 게임속에서 사는 것도 충분히 재미있어.

기범 응, 맞아. 재미있는 거 같아.

아란 아주 오래전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며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은 이후에 세상은 변했다. 전염병이 사라졌는데도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된거다. 집에만 있어도 세상은 잘 돌아 갔고, 굳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냈다. 나같이 밖을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게임속 네트워크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고 산다.

동연 그래도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어. 옛날 너랑 같이 축구도 하고 피자파티하면서 놀던게 기억나.

기범 맞아 우리 그렇게 놀았지. 같이 밥도 먹고, 연극도 했었잖아.

동연 기범이 너 대사 못외어서 엄청 고생했었지. 기억난다.

기범 무슨 소리야. 넌 목소리 안들린다고 요섭샘한테 혼나기만 해놓구선.

아란        맞아 그때 진짜 진짜 좋았잖아.

---

동연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

기범        그건 너무 위험해. 안전한 게 좋지.

---

동연과 기범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더욱 게임에 열중한다.

아란이 동연과 기범에게 다가가 손을 내민다.

동연과 기범은 게임하던 움직임을 멈춘다. 아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본다.

둘은 아란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함께 춤을 춘다.

---

---

## 6. 컨택

바닥에 누워 컨택 움직임을 시작한다. 혼자서 둘이서 셋이서 서로 만나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가 기대어 서있게 된다. 서로 기대 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말한다. 사람들의 덩어리는 조금씩 움직인다. 힘들어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들의 말은 거의 외침에 가깝다.

사람들      난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나는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해.

난 친구들과 수다떠는 게 좋아.

간디학교 오길 잘했다.

난 내 못생긴 손이 좋아.

난 사람과 포옹하는 걸 좋아한다.

가족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평온해서 좋아.

가만히 쭈그러서 여러가지 상상하는 거가 좋아.

가족이 없는 건 상상이 안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게 나는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친구, 친한 형들, 간디학교, 돈까스!

나는 검정이 좋다.

친구들만 보면 해피바이러스에 걸린 것 처럼 웃음밖에 안나온다.

친구들과 운동하고 게임하는게 제일 좋아.

한마디씩의 외침이 끝나면 각자 좋아하는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한다. 떠엄떠엄 말하다가 함성처럼 변한다. 함성이 잦아들고 사람의 덩어리가 풀어지고 관객을 향해 서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한다.



